한국 女 양궁 펖 정상 명중

日에 역전승…이성진 2관왕

펖선수권 리커브 단체

〈이 성 진〉

한국 여자 양궁이 일본에 극적 역전승을 거두며 아시아 정상에 올랐다.

이성진(22·전북도청), 윤옥희(22·예천군청), 안세진(26·대전광역시청) 순으로 쏜 한국은 19일 중국 시안의 산시 코카콜라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제15회 아시아양궁선수권 여자 리커브 단체 결승전에서 일본을 맞아 217-217(240점 만점) 동점을 기록한 뒤 추가 3발로 승자를 결정하는 슛오프에서 27-24로 이겼다.

이로써 한국은 2005년 인도 뉴델리 아시아선수권에서 중국에게 내준 여자 단체전 금메달을 2년 만에 되찾았고, 이성진은 17일 개인전 우승에 이어 대회 2관왕에 올랐다.

16강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한국은 몽골과 인도를 차례로 격파하고 결승에 진출, 중국을 꺾고 올라온 일본과 맞붙었다.

한국계 귀화선수 하야카와 나미(23·한국명 엄혜랑)와 사쿠라자와 하루요, 기타바타케 사요코(29)가 버틴 일본팀의 실력은 만만치 않았다.

한국은 4엔드에 걸쳐 6발씩 24발을 쏘는 승부에서 1엔드 55-55로 맞서다 2엔드 6발에서 51-55로 4점이나 뒤졌다.

3엔드에서 3점을 따라붙어 164-165를 만들긴 했지만 한국은 4엔드에서 윤옥희가 한 발을 7점 과녁에 쏘는 등 53점을 추가하는데 그쳐 217점으로 먼저 경기를 끝냈다.

일본은 210점에서 세 번째 사수 기타바타케가 마지막 한발을 역시 7점에 쏜 덕분에 슛오프에 들어갔다.

위기를 모면한 한국은 슛오프에서 10-8-9를 쏴 27점을 기록한 반면 일본은 두 번째 사수 사쿠라자와가 긴장을 이기지 못하고 5점을 쏘는 등 9-5-10점으로 24점에 그쳤다. 3위는 인도가 차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9일 런던에서 열린 2007~200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B조 잉글랜드 첼시와 노르웨이 로젠보리의 경기에서 첼시의 셉첸코(오른쪽)가 헤딩슛으로 동점골을 터뜨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광주벨인퍼컴 종합우승

대한체육회장기 볼링 女 일반부

광주벨인퍼컴 여자볼링팀이 제27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단체대항 볼링대회에서 종합 우승했다.

광주벨인퍼컴은 지난 14~18일까지 광주 ABC볼링장에서 열린 여자 일반부 종합에서 금메달 2,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종합 우승했다.

홍수연(광주벨인퍼컴)이 개인전에서 923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이나영(광주벨인퍼컴)은 907점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또 3인조전에서 윤희여·이나영·김여진(광주벨인퍼컴)이 한 조를 이뤄 2천520점을 기록해 곡성군청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5인조전에서는 4천38점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광주벨인퍼컴 여자 볼링팀은 올 열린 6개 전국대회에서 대통령배 종합우승, 대한볼링협회장배 종합우승, 실업연맹 회장기 종합우승등 4개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해 오는 제88회 광주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전망을 밝게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레슬링 김정섭 올림픽 티켓 확보

한국레슬링대표팀의 맏형 김정섭(32·삼성생명)이 2008년 베이징올림픽 출전권 한 장을 추가했다.

2006도하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김정섭은 19일(한국시간) 새벽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2007 세계선수권대회 그레코로만형 84kg급 준결승에서 브래드 베링(미국)에게 패해 결승전에 나가지 못했다.

김정섭은 동메달 결정전에서도 사만 타마세비(이란)에게' 져 메달권에 들지 못해 공동 5위에 그쳤지만 각 체급 상위 8명에게 주는 국가별 올림픽 쿼터를 확보했다.

이 체급 금메달은 2004 아테네올림픽 챔피언 알렉세이 미신(러시아)에게 돌아갔다.

레알 마드리드·AC 밀란 첫 승 축포

첼시, 로젠보리와 1-1 비겨
리버풀도 포르투와 무승부

각각 통산 9회, 7회 우승에 빛나는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 AC밀란(이탈리아)이 '별들의 전쟁' 2007~200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개막전에서 화려한 첫 승 축포를 쏘아올렸다.

레알 마드리드는 19일 오전(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산티아고 베르나보 홈구장에서 열린 대회 C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간판 골잡이 라울과 뤼트 판 니스텔로이가 한 골씩 터트려 베르더 브레멘(독일)을 2-1로 눌렀다.

라울과 니스텔로이는 서로 어시스트를 주고 받아 나란히 1골, 1도움을 해냈다.

전반 16분 라울이 니스텔로이의 낮은 크로스를 헤딩으로 받아넣었고 브레멘이 동점골로 응수하자 후반 29분 찬스를 자꾸 놓치던 니스텔로이가 라울의 깔끔한 패스를 결정적인 한 방으로 연결했다.

라울은 챔피언스리그 57골째를 터트려 최다 득점자의 위치를 굳건히 했고, 니스텔로이도 마침내 50호골을 뽑아냈다.

지난 시즌 챔피언 AC밀란도 D조 조별리그에서 '아주리군단'의 독일월드컵 우승 주역 안드레아 피를로와 베테랑 저격수 필리포 인차기의 활약으로 벤피카(포르투갈)를 2-1로 따돌렸다.

이탈리아산 프리킥의 달인 피를로는 전반 9분 기막히게 휘어진 프리킥으로 상대 골문 왼쪽 상단을 꿰뚫었고 전반 24분엔 인차기에게 골을 배달했다. 벤피카 골키퍼 퀸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놓고 네트를 흔든 인차기는 유럽 클럽축구 무대 60호골을 자축했다.

같은 조에선 샤크타르 도네츠크(우크라이나)가 브란다오, 크리스티아노 루카렐리의 연속골로 셀틱(스코틀랜드)을 2-0으로 완파, 선두가 됐다.

B조에선 잉글랜드 갑부구단 첼시가 약체로 평가되는 로젠보리(노르웨이)와 1-1로 비겼다. 첼시는 로젠보리의 코피넨에게 먼저 실점해 패배 일보 직전까지 몰렸지만 후반 8분 '돌아온 득점기계' 안드리 셉첸코가 동점골을 쏘아준 덕분에 간신히 승점 1을 챙겼다.

프리미어리그 연착륙이 쉽지 않았던 셉첸코는 인차기와 함께 유럽 클럽축구 60번째 골을 기록했다.

B조 발렌시아(스페인)는 비야의 결승골로 샬케04(독일)을 1-0으로 제압했다.

A조 리버풀은 포르투갈 원정에서 포르투와 1-1로 비겼다. 리버풀은 후반 13분 저메인 페넌트가 퇴장당해 10명으로 싸웠다.

마르세유(프랑스)는 베시크타스(터키)를 2-0으로 꺾고 A조 1위를 달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유급제도 악용 방지 초·중·고 축구대회 연령제한 적극 검토

대한축구협회가 학원축구에서 성행하고 있는 유급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초·중·고 전국 대회에 연령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김호곤 축구협회 전무는 19일 "현재 전국대회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초-중-고등부로만 나뉘어 치러지고 있지만 앞으로 연령제한을 두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연령별 대회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선수를 유급시키는 관행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조만간 전국대회에 초등학교는 12세, 중학교는 15세, 고등부는 18세 이하의 선수들만 출전할 수 있다는 가이드 라인을 정하고 각 연맹들과 논의를 벌이고 있다.

축구협회가 '연령제한' 방안을 내놓은 것은 일부 학원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일부러 주전급 선수들을 유급시키거나, 유급을 전제로 무분별하게 해외 축구유학을 떠나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다.

더불어 연령별 대회로 치러지고 있는 세계 축구의 흐름에도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도 포함됐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현재 1천8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초·중·고 해외 축구유학생들이 이번 조치로 인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령제한' 도입 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특히 이들 중에는 학제 인정을 받는 축구학교에서 유학을 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만큼 유급 조치로 인해 상급학교 진학이 결정되는 중, 고등부 3학년 경기를 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어서다.

스포츠중계

20일(목)

▲07/08 UEFA 챔피언스리그〈스포르팅-맨체스터Utd〉(03 : 30·MBC ESPN), 〈바르셀로나-리옹〉(05 : 30·MBC ESPN), 〈아스날-세비야〉(07 : 30·MBC ESPN)

▲메이저리그〈보스턴-토론토〉(08 : 00·Xports)

▲한국여자 프로골프 대회 신세계배 제29회 KLPGA 선수권 대회 2R(13 : 00·X-ports)

▲2007 프로야구〈SK-삼성〉(18 : 20·SBS스포츠), (18 : 30·MBC ESPN)

21일(금)

▲PGA 터닝스톤 리조트 챔피언십 1R (04 : 00·SBS스포츠)